

“추석 앞두고 단비” 광주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어르신들 ‘웃음꽃’

경제적 어려움 겪는 노인·빈곤층 재차 ‘반색’... 2차 소비쿠폰 신청 10월31일 오후 6시까지

“제수용품 사는데 이만한 보탬이 없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시작된 22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소비쿠폰 지급 전담 창구가 차려진 센터 2층 강당에는 주민들 200여 명이 모여 들었다.

1층까지 길게 줄이 늘어서 복세통을 이뤘던 1차 지급 당시와 다르게 이날은 차분한 분위기 속 번호표 전달과 소비쿠폰 지급이 이어지는 상황. 두 달 전 1차 지급 당시 불안함과 걱정어린 표정을 띠었던 주민들은 이날 비교적 가벼운 얼굴로 조용히 순서를 기다렸다.

전담 공무원들 통해 상담을 받는 주민들은 지난 1차 지급 당시의 경험을 되살려 인적사항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소득수준별로 액수가 차등지급되면서 절차가 복잡했던 1차와 달리, 2차는 지급액이 10만원으로 모두 같아 비교적 절차가 간편했다.

광주시가 이날부터 지급하는 소비쿠폰의 색깔도 주황색으로 통일됐다. 광주시는 두 달 전 1차 지급 당시 소득 수준별로 소비쿠폰 색깔을 달리 정해 이재명 대통령 등으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5분여 상담과 신청 절차를 마친 뒤 주민들은 양손으로 주황색 선불카드를 쥐어 들었다. 상담을 이끌어준 공무원들 향해 꾸벅 고개를 숙이고 나서는 주민들의 발걸음은 두 달 전처럼 다시 가볍고 경쾌했다.

지역내 독거 어르신과 빈곤층이 많이 살고 있는 두암3동의 경우 지난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발급 대상자가 1만2000여 명에 이르기도 했다. 대상자 중 99.8%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된 22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소비쿠폰을 발급받고 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함께 11월30일까지다. 기한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뉴스1

수령을 마쳤지만 이 집계가 두암3동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재차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수치로 자리잡기도 했다.

때문에 경제력이 다소 떨어지는 주민들은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복지 혜택 확충을 재차 호소했다.

이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김길훈(75)씨는 “지난 소비쿠폰 지급 당시 당장 급했던 혈압약 4개월 분과 식료품을 살 수 있어 무척 기뻐다. 이번에 받은 소비쿠폰은 적지만 추석을 대비한 제수용품 구입에 보태려 한다”며 “소비쿠폰 지급과 같은 직

접적 복지도 좋지만 연금 연납을 선택한 퇴직자들에게 대한 물가상승률 반영과 같은 다른 방향의 복지 혜택 개선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양임(82·여)씨도 “(소비쿠폰은) 소일거리 없고 쓰러질 날만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다. 오랜만에 사먹는 과일, 덕분에 생긴 동네 친구와의 이야기거리 등 무기력했던 인생에 단비였다”며 “비슷한 복지제도가 많이 생겨 소외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길 바란다”고 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10월31일 오후 6시까지다. 카드사 홈페이지·앱 등 온라인은 24시간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주말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차와 함께 11월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지급 대상자 여부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 가능하다.

/오권철 기자



전남자치경찰위, 범죄·교통안전 종합대책 점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 필요성 강조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9월 정기회의에서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추석 명절 종합 치안대책 등을 보고받고, 특별 범죄예방과 교통안전대책 등을 심도 있게 협의했다.

위원회는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과 교통안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관계성 범죄 등 고위험군 관리 강화, 귀성·귀향객이 몰리는 시기 교통 혼잡과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약취·유인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약지역 집중 순찰, 예방 홍보활동, 초기 대

응체계 확립,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추석은 도민 모두가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내야 할 소중한 명절”이라며 “도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 자치경찰의 책무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가 함께 책임 있는 예방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전년보다 긴 연휴를 맞아 교통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생활치안 현안을 지속 점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전남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민규 기자

광주시교육청, 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집중 점검

10월 2일까지 분청·기관 대상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은)은 추석을 앞두고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분청을 비롯해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사항은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금품수수 행위 등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근무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보안 관리 실패 ▲직무해태 및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시교육청은 금품·향음 수수 행위, 출퇴근시간 미준수, 근무시간 중 무단 자리

이석, 민원 처리 지연, 음주운전·폭력 등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지난 18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손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청렴 실천 운동’의 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갑질행위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이정은 교육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적인 청렴 실천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염선호 기자

전동킥보드 탄 60대 치고 달아난 40대 만취운전자 입건

광주 서구에서 만취한 40대 운전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을 치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39분께 광주

서구 삼촌동 운전저수지 앞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킥보드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차량을 두고 달아났다가 다시 현장으로 되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석우 기자

광주·전남 청소년 도박사범 4년 새 10배 ↑... 상담도 5배 급증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도박사범 검거 건수가 4년 만에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도 동기간 5배 가까이 늘어 대책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전남에서 형사입건된 도박 범죄소년의 수는 총 1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광주·전남에서 총 5명(광주 2명·전남 3명)이 검거되던데 이어 이듬해

광주·전남, 2020년 5건 검거... 2024년 55건으로 폭증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도 동기간 72건→359건 늘어

에는 27명(광주 6명·전남 21명)으로 급증했다.

2022년에는 광주와 전남 모두 각 1명씩, 총 2명이 검거되던 그쳤지만 2023년에 들어서며 광주·전남 각 6명으로 다시 늘었다.

2024년에는 광주·전남에서 총 55명(광주 21명·전남 34명)이 검거되면서 2020년

대비 10배 폭증했다. 올해의 경우에도 6월 기준으로 광주·전남에서 12명(광주 7명·전남 5명)이 입건됐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산하 지역센터의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전남 센터를 찾은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 건수는 지난 2020년 72건 집계

에 이어 이듬해 61건으로 소폭 줄었으나 2022년 76건으로 다시 늘었다.

이어 2023년에는 162건, 2024년 359건을 기록하면서 매해 폭증하고 있다. 올해도 6월 기준 벌써 199건이 상담받았다.

위 의원은 청소년 도박이 강력 범죄의 동기로 이어진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일부 청소년들이 도박을 단순한 게임처럼 인식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온라인 불법도박에 쉽게 노출되는 현실을 고려해 예방부터 상담·치유·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현근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